

**“악인이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다음세대 독살하는 소셜미디어 ‘음란물’ 확산...성경적 진리로 막아내야**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음란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각국 정부가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교인들도 성경적 가치를 토대로 함께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5월 유명 소셜미디어 엑스(X)는 18세 이상 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제작·배포한 성인 누드 및 성행위 자료에 접근하도록 하는 등 음란물을 공식 허용하는 신규 콘텐츠 규정을 내놨다. 또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다른 소셜미디어도 성인물 관련 문

제가 제기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도 예외가 아니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2019년-2023년 8월까지 음란물 성매매·성범죄 등으로 방심위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영상이 1,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소셜미디어에는 성착취 및 딥페이크 음란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인공지능 기술로 피해자를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이다. 올해 1-4월 방심위에 의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 4,691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소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CBN뉴스는 미국에서 음란물이 확산하면서 아이들이 나체 노출을 편안하게 여기며, 조사된 아동 가운데 나체 음란물을 공유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9-12세 아동의 비율이 2020년 기준 21%나 됐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연세대 김재엽 교수팀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성폭력 가해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음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실제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은 관련 법 강화로 맞대응하고 있으며, 기독교계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연합해 대응하게끔 추구하고 있다. 미국가족협회행동(AFA Action)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헤더 헤프너(Heather Hefner)는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하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아이들의 정신을 독살하는 음란물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프너는 “이러한 파괴적인 영향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건 우리 책임이다”며 “부모와 교회 및 교육자, 지역사회와 국회의원이 성경적 진리로 단결해 자녀들이 노골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시편 119:101,110)

하나님, 소셜미디어와 기술이 발달할수록 심각해지는 음란물의 확산에 무방비 상태로 생각과 마음을 잠식당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깨워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터치 하나로 너무도 쉽게 육체와 안목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원수의 올무를 피해 삼가 주의하며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각국의 정부와 교회, 가정이 자녀를 보호하고, 바른 가치로 양육하는 일에 힘써 연합하게 하사 생명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용맹한 주의 군사 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북한, 김정은 배지 처음 공개…본격 이상화 작업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얼굴이 단독으로 그려진 배지(초상휘장)를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공개해 본격 김정은 이상화에 들어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30일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지난 29일 사진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석 간부 전원이 김정은 단독 초상휘장을 달고 있었다. 이전에는 김일성·김정일이 함께 들어간 휘장을 착용했다. 북한이 김 총비서에 대한 이상화 작업을 통해 독재체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매체는 풀이했다. 최근 북한은 김일성 생일 명칭을 '태양절'에서 '4·15'로 변경하고, 평양 금수산지구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외벽에 김정은 초상화를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와 나란히 배치하는 등 김정은 이상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에스겔 14:20)

하나님, 김정은 찬양가에 이어 김정은 배지까지 만들어 자신을 이상화하여 독재체제를 강화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자고 하며 교만한 마음을 꾸짖어 주시고 낮춰주시길 간구합니다. 지음 받은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은 창조주를 찬양하는 일이며 강압과 통제로 세뇌해 인생을 의지하게 만드는 북한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모든 인생을 생명으로 건지실 분은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오니 그 진리를 가진 북한 교회를 통해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 이탈리아 경찰, 중국산 마약 원료물질 6t 압수

이탈리아 경찰이 1일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제조에 쓰이는 원료 물질인 중국산 전구체 약 6t을 압수했다고 뉴시스가 2일 AFP 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이탈리아 금융 경찰은 성명을 통해 MDMA 알약 6,300만 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중국산 마약 원료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는 밀라노 공항에서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 이뤄졌고, 몰수한 마약 원료는 시가로 6억 3,000만 유로(약 9,350억 원) 상당이며 이 화물의 최종 목적지가 네덜란드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관세청은 유럽 사법기구인 유로저스트와 함께 실시한 조사의 일환으로, 밀라노 출신의 이탈리아 기업가가 당국의 조사를 받고 2명의 중국인이 네덜란드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잠언 8:6-7)

하나님, 마약 수천만 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원료 물질을 사고팔며 사람과 사회, 더 나아가 나라를 병들게 하는 악행을 책망하시고 지금도 음지에서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빛으로 드러내 주십시오. 선에 대하여 미련하고 악에 대하여 발 빠른 이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점점 마약으로 인해 통제 불능이 되어가는 전 세계가 살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원형으로 회복되어 주님과 같이 진리를 말하며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어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대선 결과 앞두고 새정부 위한 기도요청 이어져**



이란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앞두고 새 정부에 대한 긴급한 기도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미션네트워크가 1일 전했다. 지난달 28일 치러진 대선 투표 결과, 개혁 성향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전 보건장관이 42.5%로 최다 득표자가 됐다. 강경 보수 성향의 사이드 잘릴리 전 이란 핵 협상 대표가 38.6%를 득표해 2위를 차지했다.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하는 이란 대통령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달 5일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이에 기독교 선교단체 트랜스폼 이란(Transform Iran)의 라나 실크(Lana Silk)는 “이번 선거가 겉으로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종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즉, 누가 당선되든 간에 정치적 변화나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실크는 “이란은 중동 전역에서 테러리스트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제는 이란이 수단에 진출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다”며 “이란은 국경 밖에서 자국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동맹국과 테러 조직을 배치하는데 매우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긴급히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레바논의 한 사역 지도자는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동 전체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이란의 선거가 최우선 기도제목”이라고 말했다.

미션네트워크는 “반미 및 반이스라엘 선전 장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교 어린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대악마와 소악마’로 배우고 있다. 그러나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며 “이란 국민들은 당국의 이러한 선전에 대한 오류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이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크는 “하나님께서 이란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상하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행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며 “새 대통령과 현 정부가 사울의 다메섹도상에서의 회심과 같은 회심을 위해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기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이 이 놀랍고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고 그 나라를 자신에게로 돌이키도록 기도한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잠언 21:1,21)

하나님, 위급한 중동의 정세 속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란이 지난달 대선을 마치고 마지막 결과를 앞둔 이때 주께서 친히 개입하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간절히 구하오니 위정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악을 버리고 공의와 인자를 따라 생명을 구하게 하소서. 교회의 간구를 통해 국민들이 테러와 전쟁을 조장하는 속임과 거짓을 분별하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알아 간절히 주의 다스리심을 구하여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미국 텍사스주, 동성혼 주례 거부한 치안판사 승소

미국 텍사스주 대법원이 6월 27일 웨이코의 치안판사 다이앤 헨슬리가 동성결혼식을 주례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 그녀가 주 사법위원회에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난달 29일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텍사스주 사법위원회는 이전에 헨슬리 판사가 동성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한 것에 대해 성적 지향에 따른 사법적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공개 경고를 내렸으나 법원은 헨슬리가 소송 진행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헨슬리 판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했으며, 텍사스의 종교자유회복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국가적 권리로 선언하자, 헨슬리는 맥레넌 카운티 주민들에게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결혼식 주례자 목록을 제공해 그중에는 동성결혼식 진행자들도 있어 사법적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았다고 변호했다. 대법원은 남은 항소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태복음 24:12-14)

하나님, 동성혼 주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고받은 일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헨슬리 판사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소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징계가 되어버린 미국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견고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법과 권세가 기도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외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등불을 예비하는 주님의 신부로 살게 하소서.

▲ 튀르키예, ‘시리아 난민’ 무차별 구타 확산

튀르키예 중부지역의 도시 카이세리에서 군중이 시리아 난민으로 보이는 이들을 거리에서 무차별 구타하는 등 시리아 난민을 겨냥한 집단 폭력이 확산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3일 국영방송 TRT하베르 등을 인용해 전했다. 1일 저녁 현지 주민들은 연이틀 시리아 난민의 집과 가게에 돌을 던지고 차에 불을 질렀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진압했고 300여 명이 체포됐다. 튀르키예 주민들의 집단 폭력은 안탈리아, 가지안테프, 하타이, 부르사 등지는 물론 이스탄불 외곽에서도 벌어졌다. 이번 폭력 사태는 지난달 30일 카이세리의 시리아인 남성이 7세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음에도 흥분한 주민들이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시리아 서북부의 튀르키예 군기지 앞에서도 튀르키예 국기를 찢는 등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잠언 10:9,12)

하나님, 시리아인의 범죄로 폭동과 폭력을 합리화하며 분노를 멈추지 않는 튀르키예 중부지역을 다스려 주시고, 성난 폭도들의 화를 부추기는 사탄의 간계를 꾸짖어 주십시오. 서로 간의 미움으로 인한 성냄과 다툼이 그칠 수 있도록 복음을 계시하여 주셔서 이들의 굽은 길을 고치사 바른길로 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가리는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을 세워주셔서 주를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여호와와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정의를 베푸시도다”
동성 결혼식 케이크 제작 거부한 잭 필립스...최근 세 번째 소송 진행**



기독교인의 신앙 때문에 동성 결혼식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12년간 법정 소송을 이어온 잭 필립스(Jack Phillips)가 최근 세 번째 법정 소송을 겪었다고 워싱턴스탠드가 전했다. 첫 번째 소송은 2012년에 시작돼 2018년에 미국 대법원이 7대 2로 필립스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불과 몇 주 후 콜로라도 시민권위원회(CCRC)는 필립스가 “소위 ‘성전환’을 축하하고 상징하는 맞춤형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자유수호연합(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 변호사들이 연방 소송을 제기한 후 그 혐의는 기각됐다.

하지만 성전환 케이크를 요청한 당사자가 직접 필립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 번째 소송이 시작됐다. 필립스를 변호해 온 자유수호연합은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잭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수호연합은 “잭의 법적 소송 기간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콜로라도가 처음으로 잭을 목표로 삼은 후, 잭이 사업의 큰 부분을 잃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잭과 그의 가족이 수년간 괴롭힘과 심지어 살해 위협을 견디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마스터피스 케이크샵이 문을 닫을 때까지 그럴 것이다. 그들은 조용하고 성실한 잭이 그의 신념에 따라 메시지를 표현하려는 것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길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구두 변론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필립스와 자유수호연합 선임 변호사 제이크 워너(Jake Warner)는 “콜로라도 대법원 앞에서” 이루어진 변론에서 “자유 발언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잭과 같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메시지를 표현하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워너 변호사는 “잭의 승리는 모든 사람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는 콜로라도 관리들이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주 법을 오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와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시편 140:8,12-13)

하나님, 12년간 이어진 법정 소송에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잭 필립스와 그의 가족을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도전과 공격 앞에 굳건한 믿음 주사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하시며 정의를 베푸시는 주의 이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가 함께 일어나 기도하며 싸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악한 꾀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시고,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복음의 빛 비추사 진리가 승리하는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 미국 연방법원, 하와이 학교 ‘방과 후 성경클럽’ 허용

미국 연방법원이 하와이 교육부와 6개의 개별 초등학교에 다른 클럽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전도협회(CEF)의 방과 후 성경클럽을 공립학교 캠퍼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이 지침은 어린이전도협회가 4개 지역 학군에서 학생 동아리의 운영을 막은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몇 달 만에 내려졌다. 어린이전도협회를 대리한 법률 그룹인 리버티 카운슬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굿뉴스 클럽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관계자들이 시설 사용 신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이다. 리버티 카운슬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매트 스테이버는 “이번 판결은 어린이전도협회와 학부모, 하와이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큰 승리”라며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가 학교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기독교적 관점을 차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앞이라(고린도전서 15:57-58)

하나님,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적 가치로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어린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격려받고, 더욱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법과 규제를 통해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진리의 사랑이 전해져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 시에라리온, 미성년 아동 결혼 금지법 시행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서 ‘미성년 아동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뉴시스가 3일 전했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2일 밤 ‘미성년 아동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시에라리온에서는 신부의 약 3분의 1이 아동이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은 18세 미만의 소녀를 결혼시키는 것을 형사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 15년 형에 처하거나 4,000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 양쪽 모두 벌받을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아동 결혼에 증인 역할을 한 사람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비오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엑스에 “우리 시에라리온의 미래는 여성이라고 언제나 믿어 왔다”며 “지금과 장래의 소녀들은 보호받고 동등하며 권리가 주어지는 시에라리온에서 번영할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베드로전서 1:15-16)

하나님, 조혼이 여전한 시에라리온에 미성년 아동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며 통과된 법을 통해 어린 소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켜 주십시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다수인 이 나라에 조혼뿐 아니라 여성들이 받는 여러 고통을 돌보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더욱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혼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와 헛된 우상과 세상 풍조들이 끊어지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회복되어 주의 공의와 진리가 세워지는 시에라리온 되게 하소서.